



재독한국여성모임

조국남 정리

재독한국여성모임은 1978년에 창립되어 이주민여성단체로서 이주민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한국 이주민여성들 중 여성문제와 정치사회문제에 뜻을 같이 하여 모인 여성모임 회원들은 그 동안 독일 사회에서 회원들 사이의 우의를 다지는 한편, 공동학습을 통해 의식화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려 노력하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도 하였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이주민여성들의 첫 세대는 대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곳에 온 여성들이다. 특히 약 2만 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이 시기에 독일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됨으로, 비슷한 시기에 많은 수의 한국여성들이 독일에서 삶의 터전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재독한국여성모임이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을 형성하였다. 이제는 그 이주 1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고, 다시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계 3세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여성들이 독일이란 낯선 환경 속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신을 세워 가는 작업은 새로운 자아의 정립과 두 사회에 대한 역사인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 두 사회를 동시에 끌어안기 위해서는 정제된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태도가 요구되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이며,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모임)의 역사는 여성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좀 더 진보된 사회, 인간화된 세계를 향한 정열적인 사회활동사이기도 하다. 그 결실의 한 예로서 여성모임에서 2003년에 발간한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 25주년기념문집>이나 회원들이 쓴 자전적 에세이를 모아서 2006년 4월에 발간한 <zuhause> 책을 들 수 있겠다. 그 기념문집과 책에는 여성모임 조직의 활동역사와 회원들의 삶의 흔적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여성모임의 이주민여성단체로서의 이러한 활동과 사업은 반세기가 넘는 독일사회의 “손님노동자 정책”의 이주민 역사기록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는 활동이며 다음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보아 이주민여성인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재독한국여성모임”과 “재독한국간호사”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다. 그 것은 먼저 70년대 후반에 한국여성들이 재독한국간호사들의 추방정책에 반대하여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벌렸던 서명운동이 토대가 되어 재독한국여성모임이 단체로 발전된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모임회원들의 대부분이 간호사로 와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임에 “재독한국간호사”와 관련된 테마는 늘 모든 회원들의 관심사로 주시되었다. 여성모임이 1990년 베를린에서 개최했던 “재독한국간호사 25주년 기념 공개행사”에서는 재독한국간호사들의 지난 25년간의 위치와 상황을 재조명하고 공식적으로는 “개발정책”의 일원으로 채용된 재독한국간호사들이 실제로는 “전도된 개발정책”의 일원으로 의료분야에 공헌하고 있다는 우리의 견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Dokumentation <25Jahre koreanische Krankenschwestern in Deutschland> 참조). 우리는 한국간호사들이 “손님노동자”로 독일에 와서 지난 40여년간 간호와 의료분야에 사회적으로 기여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외국인 여성”으로서, “이주민여성”으로서 꾸려가는 나날의 삶 그 자체로서 독일의 다문화사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재인식하며 독일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아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이, 130여명의 여성들이 지금까지 여성모임을 거쳐 가면서, 오늘까지 이루어 온 여성모임의 활동과 역사는 곧 재독한국간호사 40여년의 한 부분임을 확신하면서 여성모임에서는 여성모임의 창립역사, 구조, 사업과 활동을 정리하여서 재독간호협회에서 발간하는 “재독한국간호사 40주년 기념책자”에 동참하고자 한다.

여성모임의 창립역사

재독한국여성모임은 1978년 9월 17일에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선언문”,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입장”, 행동방향“과 회칙을 만들고 1978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60명이 모여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여성모임이 결성되기 전에 197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여성세미나가 그리고 1977년부터는 “재독외국인 간호사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동참했던 많은 여성들이 여성모임을 창립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 째로 1975년에는 유엔이 "여성의 해"를 선포하여 그 간에 잠재적이며 산발적으로 토론되고 있던 여성문제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그 것을 계기로 이곳저곳에서 오랜 기간 인간의 역사를 지배해 온 남성주심의 가부장제 아래 여성을 억압하는 각종 사회제도와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사상과 관습에 대한 비판의 함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조직과 시민조직들이 탄생하였고 여성해방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 되었다.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1967년에 일어났던 "동베를린 간첩단사건"으로 암담함과 공포 속에 살던 한인들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선포 이후 1974년 봄부터 그 냉각상태를 극복하고 정치적 의식을 다시 분출시키기 시작했고 한인단체를 조직하여 박정희 독재정권에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다.

셋째로는 간호사들이 스스로의 권익 찾기 운동 그 자체이다.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창립을 자극할 수 있었던 선례 중의 하나는 1974년에 베를린에서 한국간호사로 와 있던 여성들이 모여 발족시킨 "서로 돕는 여성회"이다. 이 여성회는 한국여성들이 외국인취업여성으로서 "3년간의 취업을 전제로 한 노동계약조건 문제", "체류와 노동이 함께 묶여져 있는 외국인 법" 그리고 "한국여성들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양로원에서의 업무를 병원근부로 바꾸려고 할 때의 어려움"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낯선 땅에서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소외, 격리 및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베를린에서 "재독한국간호사들의 현 상황"과 "한국여성과 독일남성과의 결혼에 있어서의 의견교환"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재독한국여성모임창립의 배경으로 지적되어야 할 다른 한 상황은 그 당시 베를린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뮌헨, 뒤셀도르프, 본 등 15개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한국여성들이 베를린 지역처럼 지역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의 모임이 조직되고 있었고 이 지역 모임은 한국간호사, 유학생, 한인교회소속 중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여성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여성들이 함께 모여 보자는 의욕이 성숙되었다. 1976년부터 조직출범 전까지 세 차례 한국여성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의 입장에서 본 해방을 개념화하고 정의하려고 한 일차적인 시도와 여성들 간의 접근 이었다고 하겠다. 이 모임에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세미나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재독간호사'라

는 현실인식 아래 그 권익옹호 그리고 독일로 오게 된 사회적 배경에 얽힌 한국과 국제정치, 그와 관련된 국제경제구조의 맥락을 찾으려는 것으로, 곧 여성모임이 태어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현장을 발견한 것이었다.

1977년 초에 재독한국간호사들이 강제해고와 강제송환을 당하는 사례가 늘자, 그해 5월 세미나에서 <재독한국간호요원 강제송환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리는 인간이지 상품이 아니다”, “가치는 있으나 더 쓸모가 없어진 한국간호요원”이라는 구호아래,

첫째, 실업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류허가연장을 보장할 것!

둘째, 무기한 체류허가를 가능하게 할 것!

셋째, 독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실은 호소문과 함께 이미 구성되어 있던 각 지역모임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여러 도시의 각 병원 앞에서 또 각 도시의 중심가에서 행인들에게 알리고, 병원 내에서는 직장동료에게 인식시키는 등 일반대중 속에서 서명 및 여론화운동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정부관계당국에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연대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각 여성단체, 인권보호단체, 노조, 교회단체와 언론계를 향한 서명운동과 여론화작업을 동시에 펼쳐나갔다.

이렇게 모아진 11000개 이상의 서명은 공개서한과 함께 각 연방주의 관계당국으로 보내졌다. 1978년 3월에는 뮌스터에서 한국간호사추방문제에 관한 공개집회를 열어 독일정부 측 담당공무원과 서명운동에 협조했던 여러 기관, 단체, 개인 및 보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서명운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공개질의와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서 서명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그 집회 이후 베를린 시를 선두로 하여 소속 각 연방주의 정부에서는 한국간호사들에게 무기한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발급하였다.

힘든 고비가 많았으나 일반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여러 단체들로부터의 지지와 후원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여성들을 더욱 고무시켰다. 서명운동의 임시연락처가

된 각 지역모임에는 더 많은 한국여성들이 관심을 보이며 참가했고 서명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모임도 구성되었다.

서명운동을 할 때 각 지역모임과 개인들의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운동의 대외창구 역할을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졌던 “재독한국여성모임“은 그 후 이 서명운동을 통한 제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전역에 산재해 있던 지역모임을 엮어 같은 이름인 <재독한국여성모임>으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여성모임의 어제와 오늘

<재독한국여성모임>은 창립 후 2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까지 그간 회원들의 변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꾀꾀하게 서 있고, 여성모임회원들인 우리는 그 첫 “서명운동”을 여성모임의 창립역사의 첫 장으로, 또한 여성모임의 명함으로 자랑스럽게 내 보이며 상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운동에서 내걸었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는 운동의 성과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정치화시켰던 과정 자체의 중요성이란 점에서도 그러하다.

우리가 얻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기 문제를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자세와, 바라는 것이 성과를 거둠으로써 얻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여성들을 정치의 대상에서 정치활동의 주체자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둘째, 공동의 문제를 힘을 모아 해결하게 되자, 정의감과 연대의식이 형성되면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셋째, 재독한국간호사의 실상을 이해함으로써 재독한국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더불어 스스로의 안목을 키울 수 있었고,

넷째,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스스로 찾아 배우려는 의지와 용기를 얻은 점이다. 이 공동체험의 성과는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한국여성들의 공감대가 되어 재독한국여성모임을 조직하는 기본 틀이 되었다.

이러한 기본 틀 아래 수렴된 방향들을 살펴보면,

* 여성의 인간화운동에 대한 인식

-여성해방이론 학습

-여성의 자의식과 주체성확립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실천방안모색

* 정치 사회의식의 고양

-한국사회인식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고찰

-독일을 비롯한 세계사의 흐름파악

-다른 정치사회운동과의 연대

* 재독한국간호사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 파악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투쟁방안 모색

* 조직형태와 회원의 자율성과 민주성 추구

-기존의 명령하달 식의 중앙집권에서 탈피하고 총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

-지역분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위의 문제제기와 방향설정은 여성모임의 창립에서부터 기본 틀로서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독일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여성모임회원들의 삶의 모습도 여러모로 변했다. 대부분 미혼으로 취업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독일로 왔던 회원들이 독일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으며 자녀들이 이제 이미 성년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3 세) 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여성들이 대다수이던 여성모임의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회원의 약 30 %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일에서 학업을 시작한 여성들이 많으며 그 중 많은 회원들이 학업을 끝낸 뒤 다른 직종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직업적으로 간호사나 혹은 유학생이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부인이냐 하는 식으로 회원들의 제 사회적 관계를 나누어 보던 것이 이제는 모두 독일의 이주민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공통성을 찾아 나가고 있다.

생활중심지는 독일이어도 항상 마음과 관심은 한국 지향적이던 회원들은 독일에서의 삶의 햇수가 서서히 한국에서 살았던 햇수를 넘게 되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묻게 되었으며, 우리의 생활현장이 독일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 위치를 이주민여성의 견지에서 고찰하거나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사회를 존중, 지향하는 인식, 우리 2 세, 3 세들이 이러한 다문화적인 사고를 스스로 체득하고 계승, 발전시켜 한국인 이주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주민들과 그리고 독일인들과 함께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 정치적인 세계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 각처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몇 십여년을 인내와 용기로 가꾸어온 우리의 삶이 독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밝히면서 이주민여성으로서 그리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여성모임회원들이 오늘까지 이루어 놓은 여성모임의 사업과 활동을 기록화 하는 작업과 이제까지 비정부여성단체의 조직인 으로서 쌓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여성모임회원들은 이주민여성 2 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대화의 길을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2006 년에 독일어로 발행한 책 <zuhause>는 2 세들과의 공동작업에서 탄생한 결실로 그 작업을 통해서 두 세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도록 힘 Tm 고 있다.

여성모임의 구조와 재정

가) 구조

여성모임을 창립할 때 특히 강조되었던 사항은 통상적인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인 것을 거부하며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를 피하고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여성들의 민주적인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모임의 자치체도가 중요시되었고 여성모임의 결정과정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체조직의 사업과 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연되더라도 지역모임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특히 임원단 구성에서 회장제도가 아니라 총무제도를 채택하여 총무가 대외적으로는 여성모임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내적으로의 권위성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무 직은 가능한 한 모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윤번제를 채택하였다. 조직의 기구는 지역모임, 대표회, 총회, 총무단,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 구조 중 지역 자치적인 성격을 띤 지역모임과 대표회는 2002년 조직이 개편되기까지 여성모임을 구축해 나가는 적절한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99/2000년에 들어서자 여성모임 기존의 구조가 여성모임회원들의 참여형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시되고, 여성모임의 사업의 향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차이도 점점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현이후 그에 대한 여성모임회원들의 입장차이가 선명해지면서 여성모임의 목표와 활동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게 되었다. 여러 토론 사항들은 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특히 “재독 한국여성모임이 이제까지 비정부조직으로서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활동을 하여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여성모임의 정치적인 향방과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졌다.

2001년부터 여성모임 25주년 행사준비를 우선적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25주년 행사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성모임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다시 보완하는 개정하려고 모인 편집위원들은,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새로운 여성모임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개편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된 회칙수정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 제안은 2001년 9월 총회에 상정이 되어 논의의 필요성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회원들이 동감하고 토론한 뒤에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2002년 임시총회에서는 조직구조 개편이 통과되어 현재 여성모임의 기구는 총회, 총무단, 소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재정

여성모임의 사업과 활동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과 행사의 규모가 자체경비만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러 재단에 신청을 하여 재정후원을 받기도 한다.

여성모임의 사업과 활동

가) 사업

1. 봄과 가을 세미나

여성모임에서는 회원 스스로의 정치, 사회의식을 키우기 위한 자체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며 창립한 후 오늘까지 빠짐없이 매년 봄, 가을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한국여성들에게 열려있어 회원들만이 아니라 비회원들도 참석한다.

세미나 방법은 회원들이 주제를 스스로 준비하여 발표하거나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들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미나 주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회원 스스로가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문제화시키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된 한국내의 정치, 경제문제 그리고 독일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다루었다.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주년 기념문집>의 “여성모임의 세미나 활동 종합 기록표”에는 모든 세미나의 주제, 강사, 날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재독한국간호사와 관련하여

-재독한국간호요원의 문제 (Dokumentation <Unterschriftenaktion gegen die Ausweisung koreanischer Krankenschwestern>, 1979 참조)

-<재독한국간호요원 강제송환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공개집회

-재독한국간호사 25주년 기념, 자체학습

-재독한국간호사 25년 기념 공개행사 (Dokumentation <25 Jahre Koreanische Krankenschwester in Deutschland> 1990 참조)

* 독일 내의 한국여성 - 국제결혼 - 2세 교육

- 한국여성의 교육 현황
- 유아기의 두 언어교육
- 재독한국여성의 위치와 2 세 교육
-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여성들의 의식 (두 문화 사이에서의 부모)
- 두 문화 사이에서의 부모와 자녀 (두 문화 사이에서의 자녀)
- 갱년기의 이론과 경험
- 타향에서의 노후
- 세대 간의 대화의 가능성
- 2 세들이 만든 영화 “교포 2 세”, “3x 이세” 관람
- 한의학
- Azidose Behandlung

* 독일 내 외국인의 위치 - 인종차별주의 - 독일의 정치, 경제

- 외국인 문제
- 독일사회에서의 외국인의 위치
- 현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재독한국 여성모임회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
- 독일의 경제정책 / 외국인정책 / 현행법
- 독일 사회 내 외국여성들의 정치 참여 - 이주민 여성들의 상황 -
- 유럽 화폐통합과 그 것이 독일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미칠 영향
- 이중국적

* 여성해방과 관련된 주제

- 초기 한국여성의 해방운동
- 여성운동과 법률
- 한국여성의 사회적 위치
- 오늘의 한국여성운동과 그 과제
- 후진국여성의 위치
- 제 3 세계 여성운동과 여성해방
- 국내여성운동의 현황

* 한국의 노동여성 - 농업노동 - 노동

- 한국 근로여성
- 농촌여성
- 독일노동사

*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 동학혁명
- 미군정 하의 남한사회
- 한국의 경제체제
- 정치개념/정치형태
- 미국의 동남아 정책
- 민족통일
- 제 3 세계 민족해방운동

- 핵무기와 한반도

- 여성회원이 보는 한반도 통일

-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 / 통일논의 / 흡수통일

-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경제

- 가트(GATT)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 한국여성 활동가들 초대 -

- 남한과 북한: 통일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룩해야하는가?

- 국가 보안법

* 한국 문화 - 민족 문화운동

- 탈춤 (역사 문화적 고찰)

- 한국민족문화

* 여성모임조직에 관하여

- 재독한국여성모임 중간결산대회(창립 5주년)

- 재 유럽 민주단체와의 만남

-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해외단체 초대 -

- 재독한국여성모임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 여성모임 상황분석

-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어제와 오늘

- 조직상담

- 여성모임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

-대화의 시간: 여성모임과 나

-창립 25주년 기념 큰 잔치(<창립 25주년 기념문집>과 <사진첩> 참조)

2. 여성모임의 간행물

1) 정기간행물

회지 <재독한국여성모임>

여성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연간지 <재독한국여성모임>을 발간한다. 이 회지에는 지난 사업연도의 사업과 활동보고,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 지역모임들의 사업보고 그리고 회원들의 글이 실린다. 회지편집은 각 지역모임이 교대로 2년씩 맡아서 했다. 지금까지 1979년에 창간호가 발간된 후 2003년에 25주년 기념특집회지는 제 21호, 제 22호는 2005년에 CD로 작성되었다(기념문집의 “회지 내용 총목록”에는 회지 제 1호에서 제 20호까지의 목차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

* 소식지 <까치소리>

여성모임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 <까치소리>가 계간지로 1991년에 창간호가 나온 후 제 19호까지 발간되었다. 소식지에는 회원들의 근황과 투고한 글 외에 여러 가지 알림 글 그리고 독일과 한국에서의 소식들이 실렸다. <까치소리>의 편집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2) 비 정기간행물

* <재독간호원 문제에 대한 문서집> (독일어)

Eine Dokumentation "Unterschriftenaktionen gegen die Ausweisung koreanischer Krankenschwestern", 재독한국여성모임 1979년 발행

* <국제여성운동 연대자료집> (한글)

한국 이리공단 후레어패션 (독일의 아틀러 봉제기업의 한국 내 생산 공장)의 노동투쟁을 사례로 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진행된 연대투쟁활동의 전 과정을 엮은 자료집, 재독한국여성모임 1990년 발행

* <Die Bescheidenheit ist vorbei> (독일어)

한국여성노동자들이 노동착취와 불공평한 국제경제구조에 저항하는 모습을 이리 후레어 패션의 사례를 들어 Terre des femmes(독일여성인권단체)와 재독한국여성모임회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이 글은 Entwicklungspolitischer Informationsdienst des evangelischen Pressedienstes(epd) III 1988에 실림

* <Made in Korea> (독일어)

-독일 아틀러 회사의 봉제여공들이 회사의 착취에 항거-

재독한국여성모임과 Terre des femmes 공동편집

출판: BRD und Drittwelt Band 35 Heft 1-89

* <Hier ist Ewig Ausland> (독일어)

재독한국여성들의 생활조건과 전망을 조사 연구한 논문집

저자: Christa Stolle

재독한국여성모임과 Terre des femmes 1990년 공동발행

* <.....gebt mir meine Würde zurueck!> (독일어)

-Zwangsprostitution im Asien-Pazifik-Krieg Japans-

<.....gib mir back my dignity!> (영어)

-Forced Prostitution in Japans Asian-Pacific-War-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엮은 소책자

재독한국여성모임 베를린지역모임과 베를린 일본여성모임 1993 년 공동발행

* <25 Jahre Koreanische Krankenschwestern in Deutschland> (독일어)

-Eine Dokumentation der koreanischen Frauengruppe in Deutschland-

재독한국여성모임 1995 발행

* <In die Prostitution gezwungen> (독일어)

-Koreanische Frauen erinnern sich-

Zeugenaussagen aus dem japanischen Asien-Pazifik-Krieg

Secolo 출판사, 재독한국여성 1996 년 발행,

*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의 자전적 에세이 신문연재(한글)

글 쓴 회원: 강여규, 김 도미니카, 김순임, 김정숙, 김진향, 손행자,

송금희, 안차조, 유정숙, 조국남, 최영숙, 한정로

한국 NGO 주간지인 “시민의 신문”에 2002 년 1 월부터 2003 년 4 월까지 연재됨

‘시민의 신문’에 연재되었던 에세이는 모두 <여성모임 창립 25주년기념문집>에 실림

*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 25주년 기념문집>(한글)

재독한국여성모임 2003 년 발행

* <사진첩> 작성(CD)

여성모임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초창기부터의 여성모임 여러 활동 및 문화 활동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서 CD 에 정리한 사진첩

재독한국여성모임 2003 년 작성

* <zuhause> (독일어)

회원들이 독일어로 쓴 자전적 에세이를 모으고 여성모임 창립회원 4명과의 인터뷰를 엮은 책

참여한 회원: 강여규, 김순임, 김양순, 김정자, 김현숙, 박정숙, 손행자, 송금희,

송현숙, 신사순, 안차조, 유정숙, 임종선, 조국남, 한정로,

Assoziation A 출판사, Heike Berner, 최선주, 재독한국여성모임 2006년 공동 발행

-예정-

* 재독한국여성모임 30년 활동역사 (한글) 발간계획

* 정신대 자료집 (독일어):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정신대 소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종합하여 함께 일한 베를린일본여성모임과 공동작업으로 '정신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

나)활동

1. 한국 내 노동운동과의 연대

여성모임은 재독한국간호사와 한국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한 고리 속에서 찾으려 하면서 행동방향에 한국 내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자기 과제중의 하나로 세웠다.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1978년)에서는 “한국의 근로여성”을 주제로 하여 회원들이 여성노동자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공부를 한 후 발표하였다.

그 당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똥물사건(1978년)에 분노한 여성모임은 강제 퇴직 당한 동일방직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독일전역에서 벌였다. 그 사건에 뒤이은 YH사건(1979년), 원풍노조투쟁(1982년) 등의 치열했던 한국에서의 노동투쟁은 여성노동자운동과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연대방법을 모색하게 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연대활동들이 이어졌다. 그 연대활동들은,

* 한국 내 소식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일

- * 한국의 밤, 한국소식의 밤을 각 도시에서 개최하여 한국의 노동현실과 정치상황을 폭로하고 국제 분업의 연관성을 독일사회에 여론화시키는 일
- * 각 도시와 지역의 행사나 축제 때 한국음식을 만들어 팔아 이익금 모아 보내기
- * 성금구좌를 별도로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한국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하기
- * 회원들로부터 의무적인 성금 거두기
- * 한국여성노동자들과의 신속한 연락을 위한 소모임 구성하기
- * 이와 관련한 자료집 만들기 등이었다.

대부분 직장여성들인 회원들은 근무 후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했으며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아진 성금은 적은 액수이었으나, 그 일에 쏟은 정성과 연대감을 합친다면 아주 값진 돈이 한국의 여성노동운동단체로 보내졌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은 여성모임의 중요한 과제였고, 경험이 축적되어 1986 년과 1987 년의 이리 후레어 패션 여성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독일의 아들러 봉제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한국 이리공단 후레어 패션의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재독한국여성모임에 연대투쟁을 요청해 왔다. 여성모임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독일의 아들러 본사에 강력한 항의편지를 보냈고, 동시에 그 동안 다져 놓은 독일내의 연대단체 조직망을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투쟁과 독일에서의 연대투쟁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독일사회에 국제 분업현장의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경제관계를 파헤치는 국제연대운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국제여성운동 연대자료집>, <Die Bescheidenheit ist vorbei> 그리고 <Made in Korea> 참조).

2. 문화 활동

여성모임의 중요사업의 하나인 문화 활동은 베를린지역의 탈출활동부터 시작되었으며(1979년),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2 세들에게 전하며 독일인들

에게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에서 범람하는 미국문화나 지배층의 문화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하여 민족의 고유문화와 민중들의 삶을 통한 문화를 세미나를 통하여 함께 공부하였고 한국에서 민중문화 활동가들이 독일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회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1980년 광주항쟁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미 문화원 방화사건>을 주제로 한 문부식, 김현장 구명운동 단막극, 여성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공장의 불빛”, 동학을 연극으로 꾸민 “금강”등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졌다. 아울러 풍물패가 구성되어 곳곳에서 공연을 하였다. 베를린 지역에는 풍물패 “들풀”, 뮌헨지역에는 풍물패 “바람”(1992년)이 있었다. 또한 2세들에게 풍물을 전수하여 프랑크푸르트의 “단비”, 베를린의 “천둥소리”등의 풍물패가 탄생하였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다른 재독 한국문화단체들이 탄생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 문화단체들이 발족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 2세 언어교육 (토요 한글학교)

2세들에게 어머니 나라인 한국을 알게 하고 또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성모임 회원들은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베를린에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회원들이 주말한글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여성모임회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한인학교를 꾸려 2세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켰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거기에 맞는 교육목표, 방법, 자료들의 부족으로 한글학교운영은 중단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여름 방학에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2세 한글교육을 지속시키고 있다.

4. 독일어 언어연수회

여성모임의 활동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회원들의 자체역량강화도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의 연대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전문적으로 통역을 한다면,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해 졌다. 이 일은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이라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독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언어인 독일어를 한층 더 다듬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1989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위한

독일어연수회가 3 회 마련되었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엄마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독일어공부에 몰두 할 수 있었다.

5.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활동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의 군위안부로 끌려가 희생을 당한 소위 정신대 할머니
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받기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위해 <국제연대소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한국의 정신대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정신대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
룰 수 있도록 여러 공개 행사와 책자 발간, 여론화 작업을 하였다. 2000 년 12 월에
도쿄법정에는 여성모임대표들을 보내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 25주년 기념문집>의 “정신대 활동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음)

6. 여성의 전화설치

재독한국여성모임 25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전문성을 키운 여성모임은 독일에 “
여성의 전화”를 설치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여성들이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익명으
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2003년부터 전개하고 있다.

7. 타 단체와의 공동 활동 및 연대활동

- * 독일개신교대회에 참가함 (1977년부터).
- * 광주항쟁을 계기로 단식투쟁에 동참했고, 매년 5월을 민중제 기간으로 정하여 독
일에 있는 다른 한국인 단체들과 독일인 단체와 공동으로 오월민중제를 개최함.
- * 재 유럽한국민주운동단체와 독일인 단체, 한국연대위원회와 공동으로 “문부식, 김
현장 구명운동”을 벌임 (1982년).
- * 제 1차 “외국 여성과 독일 여성들의 회합”(1984년 프랑크푸르트)과 제 2차 모임
(2004년 3월 프랑크푸르트)에 참석함.
- * 독일 내의 여러 한국민주화추진단체와 동학제 공동 준비하여 연극 “공장의 불빛”,
“금강”을 공연함 (1985년).

- * 단체 “Korea-Komitee”와 공동 활동을 하여 1988년 올림픽경기 지구인 서울로 세계의 시선이 주목된 것을 기회 삼아 한국 내의 정치, 사회, 인권문제를 폭로하는 활동을 함.
- * Terre des femmes (독일 여성인권단체)를 위시한 17개의 독일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리 후레아패션의 노동투쟁에 연대하여 국제연대활동을 펼침 (1987년) <국제여성운동 연대 자료집> 참조).
- * 독일 학생장학회인 “ASA (Arbeits- und Studienaufenthalt in Afrika, Asien und Lateinamerika)”에서 한국여성노동자 2명이 초대되었을 때 순회강연을 준비하고 진행시킴. (1988년)
- * 연대하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분배 재단 (Stiftung Umverteilen fuer eine solidarische Welt)의 여성부와 아시아부에 회원조직으로 활동함.
- * 녹색당 재단 중의 하나였던 (1989년 - 1997년까지) “Frauen-Anstiftung”의 회원 조직으로 활동함.
- * 캠페인을 위하여 조직되었던 “Kampagne Suedstroemmungen” -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여성들이 공동으로 1992년 11월 25일부터 일 년 간 벌린 ”폭력과 차별대우의 종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
- * “여성의 존엄 - ”인간의 존엄” “전쟁과 강간”이라는 주제로 1993년 베를린의 일본여성모임과 함께 정신대 문제 국제대회를 베를린에서 주최함. 그 이후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계속해서 연대하며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음.
- *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여성모임회원들이 참가 함. 재독한국여성모임은 <김학순 할머니 포스터에 지문 찍기 운동>을 벌여서 3000명의 지문이 찍힌 포스터를 도쿄 법정의 입구에 걸었음.
- * DOMIT (Dokumentationszentrum und Museum ueber die Migration in Deutschland e. V. (터키) 이주민에 관한 기록 자료센터와 박물관)과 Koelnischer Kunstverein 이 주관한 <Projekt Migration>에 여성모임 조직의 기록자료, 회원개

인들의 기록 자료와 전시물을 모아서 제공하여 이주민 박물관전시에 협력함(2005년).

*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관하는 700 회 수요시위에 연대하여 베를린에서 타 여성 단체들과 공동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대시위를 벌임(2006년 3월 15일) .

8. 그 외 활동

* 연극연수회 (동학): 1981년, 괴팅엔

* 탈춤 및 풍물 연수회: 1983년, 뮌헨

* 공개서한발송: 독일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폭력행위, 망명자수용소의 방화 등에서 나타난 인종차별주의와 이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독일정부의 외국인정책을 비난하는 공개서한을 3회에 걸쳐 독일의 각 연방정부 및 행정기관, 각 정당, 각 신문사 등 몇 백군 데에 발송함.

*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여성들을 후원하는 활동을 함.

* 여성모임회원들의 유대관계를 위한 회원들이 단체여행을 함(2001년 봄, 2003년 가을, 2006년 가을).

* <zuhause> 책 출판기념 낭독회를 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에서 2006년 9월 29일 Die Veranstaltungen finden jeweils um 19.00 Uhr in der NGBK statt (1.OG, Oranienstrasse 25).

23. November 2006

개최함.